

## 성모기사회 지도자 신부의 편지 7호

친애하는 성모기사회 여러분

- 구약으로까지 되돌아가는 것조차 옛 전통이지만, 최후의 만찬에서 종도들에 의해 특별한 중요성이 주어진 - 은총의 중요한 이 시대를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도 옛 전통입니다. 모두 함께 (몇몇은 모이지만 못 오는 신자들은 영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파티마에서 이번 8월을 기념하는 기념식은 과장 없이 유일하고도 장엄하다고 표현될 것입니다: 이 날은 파티마 발현 및 성모기사회 100주년입니다!

1917년 8월 19일, 성모님은 3명의 목동을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여섯 번에 걸친 사적인 발현으로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성모님은 보통 발현 장소와는 동떨어진 발린호스(Valinhos)라고 부르는 한 장소에서 세 아이를 놀라게 하셨는데, 이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주요 성지와는 반대로 고요함과 묵상을 위한 오늘날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성모님은 슬픈 표정으로 아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여라. 아주 많이 기도하여라. 죄인들을 위해 희생을 바쳐라. 왜냐하면 저들을 위해 희생을 바치고 기도하는 이들이 없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가기 때문이란다.”

이 장소에서 우리가 모이게 되는 이 날이 정확히 100주년이 되는 것은 우연일까요?

순례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가 파티마에 관한 제 1권의 내용에서 나오는 몇 가지 생각을 인용할까 합니다:

“기도하여라. 아주 많이 기도하여라.” 똑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파티마에서 또한 유일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표현이 담긴 이 외침에서 3가지 요소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눈과 영혼을 뚫는 성모님의 슬픈 눈으로 성모님은 우리 마음에 호소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이야, 제발 기도하거라! 기도가 없다면 너는 네 영혼을 구령할 수 없단다. 기도가 없다면 너는 천주님과 일치할 수가 없고 천주님의 성총을 얻을 수 없단다.”

둘째: 성모님은 요청을 배가(倍加)합니다: “기도하여라. 기도하여라! 사랑하는 아이야, 네 기도로는 충분하지 않단다. 너의 기도를 두 배로 하여라. 양(量)보다는 질(質)로 기도하여라. 온 정성을 다하여 기도를 잘하도록 하여라. 기도할 때, 너의 기도에 전적으로 몰입할 정도로 혼신의 노력을 다 하여라. 또한 나의 성자의 영광을 위해, 나를 위해, 그리고 영혼들의 구령을 모든 것을 다하여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나를 기쁘게 한 묵주 기도 1단은 나태함과 피상적으로 한 묵주 100단 보다 더 낫다.”

셋째: 성모님은 주장하십니다: “기도하여라. 아주 많이 기도 하여라! 나의 성자께서 너희가 ‘항상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 하라 원하심을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천주님과 끊임없이 일치되어서야만 천주님의 성총이 끊임없이 너희를 꿰뚫을 것이고 성신의 은총을 너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단다. 천주님과의 끊임없는 일치는 수년간 이어진 수많은 노력이 있은 후에서야 비로소 특별한 은총이 주어진다. 그러나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이 목적을 이룰 유일한 방법은 너희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기도를 자주 ‘아주 많이’ 하는 것이란다.

성모님의 이러한 요청과 발린호스(Valinhos)의 정신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순례 전에 침묵과 기도의 정신으로 몇 주 동안 노력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계속하여 이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의도적으로 우리 자신을 벗어나게 하여,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발린호스(our

Valinhos)’를 찾고, 천주님과 성모님과 함께 고요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천주님 앞에서의 침묵의 이 시간은 그 날을 통하여 우리 기도생활의 휴식을 이루는 샘과 원천이 될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를 실천하는 한 가지 드러난 수단은 - 그날 여러 가지 일상생활 가운데조차 - 어떤 간절한 기도, “예수, 마리아여 나 당신을 사랑하오니, 영혼들을 구하소서.” 라는 화살기구(祈求)의 씬 없는 반복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와 마리아에 대한 사랑에다가 영혼을 위한 사랑을 덧붙이고, 또한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이중으로 실천하고 그리하여 성장하게끔 도와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기도는 파티마의 정신에 완전히 일치합니다:

## 1. “천주님을 위로하라”

“예수, 마리아여 당신을 사랑하나이다.“라고 충실하게 기도함으로써, ”지극히 슬퍼하시는 천주님“을 우리가 위로합니다. 일생동안 자신의 인생목적을 알았던 거룩한 프란치스코 성인과 우리 자신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성모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바 성모님은 슬퍼하시며 우리 시대의 죄의 홍수로 인하여 성모님과 천주님이 우리의 위안을 몹시 원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함은 분명히 발린호스(Valinhos)에서입니다.

## 2. “불쌍한 죄인들을 위하여”

이것은 파티마의 두 번째 요청인데, 성모님께서 특히 자신을 헌신한 거룩한 야친타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지옥의 환시 가운데 야친타에게 특별히 드러난 죄인들에게 필요한 기도의 필요성은 지독할 정도로 그녀에게 고통을 주었고, 그리하여 야친타는 남은 여생 동안 오로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희생을 바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영혼들을 만납니다. - 그들에게 ‘영혼구령’을 보내줄 좋은 기회인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 간절한 화살기구(祈求)가 영혼 구령의 필요성과 저들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생각나게끔 해주는 방법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정신으로 다음 몇 주간 보다 더 충실하게 준비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모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파티마에서 성모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 잘 준비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함께 "성모님께 드리는 9일 기도(novena)"기도하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기도는 성전(聖傳 - 전통)에 헌신한 어느 아일랜드 수도원에 의해 마련한 이 기념일을 위해 작성된 심오한 기도입니다. (아래)

## 2017년 순례기념을 위한 준비기도

태양을 입은 여인이신 오, 티 없으신 동정 마리아여. 100년 전 파티마에 방문하시어 모든 이들에게 어머니 같은 사랑과 하자 없으신 성심을 알려주신 지극히 거룩한 로사리오의 여왕이신 마리아여, 당신께 드리는 우리의 완전한 봉헌을 받아주소서. 우리와 동방과 서방에 있는 가톨릭교회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성신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방주로서 성모님의 티 없으신 안전한 피난처로 우리를 받아주소서. 우리 각자가 금년에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 안에서 끊임없는 기도의 성소(聖所), 지극히 거룩하신 성 삼위와 함께하는 친밀한 감실, 모든 병약자들의 치유를 위한 병원, 가장 용감하면서도 지극히 충실한 영혼조차도 위협을 하고 있는 혼란 가운데 평화의 항구이신 성모님을 찾게 하소서. 우리가 목주를 쥐게끔 영감을 불어주시어 지극히 그대를 사랑하고, 금년에 그대 하자 없으신 성심께 우리 마음을 다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사나 죽으나 봉헌된 우리의 소망의 표현을 다하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십자가 제대 위에 한 번 제물이 되어 우리 죄를 속량하신, 교회 제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아직도 자신을 제헌하시는, 그리고 숨어계시고 침묵 가운데 흔히 잊혀진 어린 양에게로 돌리게 하소서.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 당신 연민의 위대하고도 강력한 표현, 그리고 해가 뜨고 지는 교회에서, 또한 참으로 온 세상에서 그대의 티 없으신 성심의 승리가 드러나는 금년이 되게 하소서. 모든 저항을, 악마와 인간의 모든 저항을 이겨내서 그대 모성 안에서 그리고 성모님 태중의 복되신 열매이신 그리스도 예수 얼굴에서 빛을 발하는 성부의 영광 안에서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을 모든 영혼들에게 드러나게 하소서. 오, 온화하신 이여. 오, 사랑이여. 오, 감미로우신 동정 마리아여!

(전통을 지키고 있는 한 아일랜드 수도원이 지은 기도문)